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대신 회개하는 사람      성경: 민수기 16장 41-50절

Tag:

41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46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49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에 죽은 자가 만 사천칠백 명이 었더라

50 염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민 16:41-50)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온다.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다가 메추라기만 먹게 된 이야기도

나온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도 나온다. 누나 미리암이 질투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도 나온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야기도 나온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이야기도 나온다. (민20)



15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시78:15)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어나게 하셨느니라 (사48:21)

오늘 이야기는 고라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다. 특이한 점은 고라의 반역 이후에 백성의 반란이 이어졌고, 곧이어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모세는 지혜를 발휘하여 제사장 아론에게 향로를 취하여 백성에게 가서 속죄를 선포하게 하였다.

이야기는 고라의 반역부터 시작된다. 먼저 이스라엘 족속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쳤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고라가 이처럼 반역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된다.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떼를 보내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12장에는 미라임이 질투가 나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모세의 로맨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알고 지냈으리라.-야살의 책.)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과 권력 중심부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은 고라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내가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나온다.)

13장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군사적 행동이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계획하신 셈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노예로 살았다. 그들의 노예 근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정탐꾼조차 믿지 못했다. 가나안은 훌륭했지만,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를 원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성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그 댓가는 혹독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 구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만 했다.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꿈이 사라진 셈이다. 이들은 애굽으로도 가지 못한다. 가나안으로도 가지 못한다. 그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한다. 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르우벤 족속과 고핫 족속은 서로 가까운 곳에 진을 쳤다.

고핫의 손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장교 250여명을 모았다.

특히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다. 르우벤은 실질적으로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유다지파에게 빼앗긴 흑역사가 있다.

고라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더 거룩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론이 제사장직을 세습한다는 것이 여간 못마땅하였다.

다단과 아비람 역시 모세에게 모든 결정권을 맞기고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고라는 종교적 주도권을, 다단은 정치적 주도권을 탐냈다. 고라가 모세에게 도전장을 냈다. 명분은 우리도 충분히 거룩한데, 왜 너는 스스로를 여호와와의 총회 위에

높이느냐는 것이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모세 너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도 충분히 거룩하거든. 가치관이 거룩함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고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나?

그런데 제사장이 직분을 구하다니, 당을 지어 여호와를 거스르다니, 아론을 원망하다니 가당치 않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고 불만만 잔뜩 전달하였다. 정치적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구나.

그러자 모세는 몹시 화를 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모세는 문득 지혜가 떠올랐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공정하게 주도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일단 고라를 비롯한 250명에게 향로를 준비시키고, 불을 담고,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제안했다. 물론 아론도 그렇게 했다.

다음날 고라는 자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이용해서 회막 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였다. 힘으로 밀어 붙여서 모세와 아론을 내어 쫓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회중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들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명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멸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 죄하였는데 모두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셨다.

답을 받은 모세는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장로들이 따라갔다. 모세는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왜냐하면 이들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 벌도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벌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어,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짐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다.

땅이 산채로 그들을 삼키고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라버렸다.

다음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도다’ (사탄은 항상 인간적인 동정심을 자극한다.-세월호, 노무현의 죽음, 조국 수호대.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죽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천안함 유가족, 노회찬의 죽음 등.)

그들은 데모를 하였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쳐들어갔다.

여호와와 영광이 다시금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다시금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다.

여호와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서 엎드렸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었다. 도무지 핑계거리도 없었다.

몹시 다급하게 되었다. 모세는 순간 지혜를 발휘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취하게 하고 백성에게 뛰어가서 속죄를 선포하게 하였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백성들에게 적용한 것이다. 급하게 속죄예식을 실행한 셈이다. 대제사장 아론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하는 향로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를 선포하였다. 장소나 시간, 대상은 달랐지만, 아무튼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긴 하다. 일부러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것이다.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어찌 되었든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하였고, 회중의 반역은 마귀적이었다. 이제는 그 어떤 핑계도 없었다. 모세는 하는 수 없이 향로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다른 방법이라면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제물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아론이 속죄를 선포하면서 백성들 사이로 달려가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

전염병으로 죽은자만 14700명이었다.

## 교훈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치열한 싸움.

그 가운데 모세가 두 사이를 지혜롭게 중보함.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받을 문화와 기질과 행동과 말들을 제거함.

이 작업이 몇천년 계속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성됨.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한 폐렴의 핵심 정신은 거짓말이다.

왜 우한 시와 신천지 성지를 중심으로 이 저주가 퍼지겠는가?

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를 계속해서 시련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해야 하며, 영적 전쟁에 대비하며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찬양예배〉

제목 : 모세의 리더십      성경: 민수기 17장

Tag: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

였더라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민17:1-13)

-하나님의 기적,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민12장 구스 여인을 취하는 모세, 그러나 모세 편에 서시는 하나님.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잡족은 항상 문제 집단. 그러나 모세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함.

-모세는 누나의 항의에 아무런 댓구를 하지 아니함. 자신의 문제가므로 변명하기를 거부함.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셨다. 굵어 부스럼을 피하는 모세. **모세는 온유한 사람.(변화받은 모세, 80년 걸림.)**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심.

-모세는 급이 다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대화하심. 그는 여호와와의 형상을 봄,

-중보자 모세.

프리바 쪼개진 반석.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20:12)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방식과 타이밍을 믿지 아니함; 모세 자신의 방식과 요구와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절대복종을 의도했을 가능성

이 있음. 독재자 모세? 네가 시진핑인가? 김정은인가? 왜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야 하는가? 관심병. 주도병.은 자신의 결말을 망가뜨린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통치력을 상승시키는 도구로 쪼개진 반석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닌 모세가 원하는 때에 반석을 내리침. 모세는 화가 났고, 자신의 기분대로 물을 내는 시간을 질질 끌었을지 모른다. 거룩함이 드러날 타이밍에서 실패함. 인간적인 의도는 때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회중의 믿음에 어느정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